

메타비평의 문학교육적 가능성에 대한 고찰

우신영*

|| 차례 ||

- I. 문제의식 : 메타비평가로서의 문학교사
- II. 메타비평의 개념과 문학교육적 의의
- III. 문학교사의 메타비평 활동 내용 설계
- 김현, 백낙청, 유종호의 김승옥 비평을 예로
- IV.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문학교실에서 문학교사가 메타비평가로서의 속성을 지닌다는 전제에 기반하여, 문학교사가 수행할 수 있는 메타비평적 활동의 내용을 제안하였다.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의 능동적인 비평 활동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비평 활동의 방법론이 제안되거나 전문가의 비평 능력과 학습자의 문학 능력을 연계시킬 수 있는 모델이 탐구된 경우는 드물었다. 따라서 비평이 갖는 문학교육적 의미를 생산적으로 활용하면서 비평 주체들의 문학능력을 교수학적으로 변환하는 문학교사의 메타비평 활동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여기서는 문학 비평의 장에서 비교적 다양한 논의가 축적된 1960년대 김승옥 소설에 대한 비평 담론들을 살펴봄으로써, 문학교사가 수행할 수 있는 메타비평 활동의 내용을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제안된 문학교사의 메타비평 활동 내용은 각 비평담론들이 생산된 장을 소급적으로 재구성하고, 가치판단 양상과 그것의 논리화 전략을 검토하며, 비평 수행 주체의 문학관을 시차적으로 검토해나가는 작업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이러한 메타비평적 활동은 문학교사의 교수학적 지식 신장, 학생들의 문학 경험을 위한 교육 내용 추출, 학습자들의 문학능력 성장을 위한 비계 마련 등의 문학교육적 의의를 지닌다.

* 명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주제어 : 메타비평, 메타비평 활동, 문학교사, 교수학적 지식, 문학능력

I. 문제의식 : 메타비평가로서의 문학교사

이 글은 문학교사의 교수 행위가 지닌 메타비평적 속성에 주목하여, 문학지식의 형태로 고착화된 비평 담론들의 화용론적 맥락을 소급적으로 구성하고 판단하는 메타비평을 문학교사 교육의 한 내용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메타비평 쓰기는 문학교사로 하여금 특정한 문학텍스트나 작가에 대한 다각적 이해를 가능케 하고, 정형화된 문학지식의 형태로 주어지던 비평의 역동성을 복원시켜 비판적 안목을 신장시키며, 비평담론이 추구하는 감상의 논리화 전략을 일종의 방법적 지식으로 습득하게 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현재 문학교육에 비평텍스트는 주로 문학지식의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비평텍스트는 교과서나 참고서, 혹은 문학 수업 내용을 통해 작품 해석을 위한 지식 형태로 제공되기도 하고, 작품의 문학성이나 시대적/문학사적 의의에 대한 평가 준거가 되어 교과서 제재나 서술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처럼 비평텍스트가 문학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현상이나 활용의 교육적 의의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 문제는 그것이 학습자들로 부터 너무 ‘높이’ 있다는 점, 그리고 해석을 위한 지식이 아닌 해석의 유일한 전범 그 자체로 수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학교실에서 지식의 형태로 ‘전환’된 비평텍스트는 본래의 맥락을 잃어버리고 학습자에게 마치 주해나 주기율표와 같은 것으로 수용될 수도 있다. 가령 학습자는 크롬 자체를 경험해 본 적은 없으나 그것이 24번이며 6족

4주기라는 것을 외우면 그것을 ‘안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문학교실에서 학습자는 염상섭의 『삼대』나 김동리의 『역마』를 끝까지, 혹은 감동적으로 읽어본 적은 없었으나 그 작품이 ‘심퍼사이저(sympathizer) 조덕기 3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1930년대 서울 중산층의 가치의식’과 ‘생의 구경적 의식’을 보여주는 수작이라는 주도적인 비평 지식을 외위 적으면 그것을 ‘안다’고 평가받을 수 있었다.

지식으로서의 문학비평이 갖는 교육적 가치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지식으로서의 주기율표가 갖는 교육적 가치와 분명히 달라야 한다. 크롬에 대한 화학적 지식은 크롬에 대한 A의 경험에 기여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문학교육에서 『무정』에 대한 비평텍스트는 『무정』에 대한 A의 경험에 기여해야 한다. 하지만 그 기여의 가능성을 차치하고, 아무리 A의 국어교사가 노력해도 A는 『무정』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무정』에 대한 A의 유효한 경험이 가능해질 수 있기 위해 문학비평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여기서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전문가의 문학비평과 (학습자가 구성하는) 문학경험을 매개하는 매개항으로서 문학교사의 메타비평 활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의 능동적인 비평 활동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비평쓰기 활동이 본격적으로 수행되거나, 문학비평 담론이 직접적 교육 자료가 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는 비평 활동이 권위 있는 문학이론 전문가의 행위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학수업에서 제공되는 문학지식이나 정전의 선정과정은 문학비평의 장(場)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문학비평은 담론과 논쟁의 소통구조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문학교실은 이같은 문학비평의 역동성으로부터 유리되어 있었다.

이는 문학교사의 수업이 문학작품의 설명과 평가, 소통에 관여하는 메타

비평가적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음을 상기해볼 때 개선되어야 할 상황이라 파악된다. 물론 문학교사가 수행하는 비평적 활동은 전문문예비평가 그 성격을 달리한다. 전문문예비평이 그 작품이 담지한 문학성을 감식하고 평가하는 일이라면, 그리하여 사회적, 정치적 성인(成人)인 비평가 자신의 정합적 논리나 현란한 문체를 통하여 자기 주관성을 확보해나가는 일이라면, 그것이 학습자에게 날 것 그대로의 자료로 주어지거나, 직접적인 쓰기 활동의 대상으로 상정되기에는 난점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메타비평 쓰기의 주체를 교사로 놓고자 한다. 문학교육현장은 가장 널리, 영향력 있게 시행되는 비평의 장이면서도 비평의 한 분파로 인정되지 못했다.¹⁾ 이는 전문비평이 지니는 정치적이고 전문적인 성격이 교육의 전제와 상충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물론 교사에게는 전문비평가들과는 달리 공적 아카데미즘이라는 현실적 맥락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는 비평교육의 한계라기 보다는, 역으로 비평교육의 특수화를 가능케 하는 힘이라 할 수 있다.

비평을 문학에 대한 가치평가, 설명, 그리고 그러한 작품의 소통을 증진하는 일로 규정²⁾하고 보면 비평이 평가하고, 설명하고, 소통시키는 자, 즉 언설의 주체와 맥락, 의도, 전략을 가진 행위라는 점이 뚜렷해진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비평 담론의 화용론적 성격³⁾에 주목하고자 한다. 가치판단은 필연적으로 평가하는 자의 입장을 전제하며, 이는 평가하는 자의 존재 방식을 드러낸다. 따라서 한 작품에 대한 비평들은 각 비평가들이 서 있는 개인적, 사회적 입지에 근거해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평가의 타당성

1) Hernadi, P., What is criticism?, Indiana University Press, 1981(최상규 옮김, 『비평이란 무엇인가』, 예림기획, 1988).

2) 우한용, 『문학교육의 평가 - 메타비평의 글쓰기 평가를 중심으로-』, 『국어교육』100, 한국어교육학회, 1999, p.539.

3) Ricoeur, P., Soi-même comme un autre, Paris : Seuil, 1990(김웅권 옮김, 『타자로서의 자기 자신』, 동문선, 2006, p.65).

을 확보해가려는 시도의 결과물이다. 여기서는 문학 비평의 장에서 비교적 다양한 논의가 축적된 1960년대 작가 김승옥 소설에 대한 비평 담론들을 살펴봄으로써, 각 비평가의 가치판단 수행 양상을 살피고, 담론의 화용론적 맥락을 소급적으로 재구성하는 교사의 메타비평 활동을 제안하려 한다. 메타비평 쓰기를 통해 교사는 각 비평 담론의 주체가 작품의 어느 부분을 선택적으로 초점화하고, 어떤 이유에서 그것에 공감하며, 어떤 전략을 통해 자신의 판단을 논리화하는지를 비평가가 근거한 장(場)과 문학관에 비추어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문학비평의 장 안에서 각각의 비평 담론을 정위(定位)하고, 이를 다시 메타비평으로 재구성하는 활동은 교사의 문학작품 이해를 확장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비평 활동 내용을 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II. 메타비평의 개념과 문학교육적 의의

메타비평은 일반적으로 작품에 대한 비평을 비평하는 작업을 말한다. 그것은 대체로 비평의 본질을 규명하거나 방법에 대한 형이상학적 탐구, 비평담론에의 개입, 특정한 비평가에 대한 논쟁을 통해 비평의 자기테크놀로지(self-technology)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⁴⁾ 이러한 메타비평은 기존 문학비평에서도 사용되는 방법으로, 아이즈너 역시 메타비평의 방법을 교육비평에 적용하여 소개한 적이 있다.⁵⁾ 한편 비평의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메타비평의 필요성을 역설한 김우종의 언급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이동연, 「메타비평의 정치적 재구성」, 『문예미학』6, 문예미학회, 1999, p.423.

5) Eisener, W. E., *The educational imagination : On the design and evaluation of school programs*(Third edition), Macmillan College Publishing Company, 1994.

우리는 지금까지 시나 소설에 대한 비평은 수시로 해왔다. 그러나 그러한 비평에 대한 비평은 별로 활발히 진전되어본 적이 없었다. 그리하여 우리 비평은 무질서한 가운데서 악질적인 발언이 그대로 묵인되기도 하고 양심적인 발언이 무시되기도 하였다.⁶⁾

이 글에서는 문학교사가 수행하는 메타비평, 즉 문학교육적 메타비평에 대해 논하기 때문에, 메타비평을 전문비평에 대한 해석 측면에서 접근하려 한다. 즉 메타비평가로서 교사의 활동은 각 비평담론들의 가치판단 양상과 그것의 논리화 전략, 그 근저에 깔린 이념을 비판적으로 탐색해나가는 일이다. 이 메타비평의 결과로 구축된 교사의 문학지식은 학생들의 문학 경험을 위한 교육 내용 구성에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교사의 메타비평 쓰기는 작품이 지닌 문학적 가치를 자기 주관성에 의지해 밝히는 전문비평과 달리, 기존 비평의 종합적 해석에 그 방점이 찍힌다. 교사는 비평가적 자세로 누가 언제 왜 이런 비평을 했는지, 그리고 이 비평담론을 어떻게 공적 실천성의 영역에서 교육적으로 소화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트릴링은 전문비평과 교사비평의 차이성을 아놀드의 『비평의 기능』에서 발견하고 있다. 전문비평은 정신적 극치의 완성이 라는 요소들을 탐구하는데 설사 그 요소들이 실천적 혹은 윤리적 영역에서는 해로운 힘 쪽에 속한다 하더라도 정신의 완전한 충실을 위해서는 필요한 그런 요소를 연구하고 칭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의 입장에서는, 비평가와는 달리 목전에 학생들이 놓여 있으므로 실천적 영역의 질문에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아카데미즘의 평가단위인 공적 실천성에 일단 정지해야 할 한계(혹은 가능성)를 지나는 것이다.⁷⁾ 즉 문학교실에서의 메타비평은 포도주를 감식하듯 해당 작품의 문학성을 판단하는 전문

6) 김우중, 『비평의 원칙 문제』, 『현대문학』45, 1958.9, p.77.

7) 김윤식, 『韓國文學史論考』, 법문사, 1973.

비평과 달리, 비평 속에 드러난 가치관의 합리화 과정을 판단하고, 이를 교육적으로 성찰하도록 정향되어야 한다.

교사의 메타비평 활동은 비평담론을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문학교육의 한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문학교육의 대상을 문학 텍스트에서 문학 현상으로 확대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여기서 문학 현상이란 문학작품을 포함해 그것을 둘러싼 각종 담론들이 생산, 수용, 소통되는 전 과정을 일컫는다.⁸⁾ 따라서 교과서 작품을 고정된 실체로 놓고 그것을 해석하는데 치중했던 경직성에서 벗어나, 문학 현상 전반에 대한 안목과 그것의 교육적 가능성을 조망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비평이 지금까지의 문학교육과 무관했던 것은 물론 아니다. 비평의 장에서 파악된 문학의 경향과 작품의 평가가 문학사를 이루고, 그것이 문학 교과서의 조직과 내용 선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기실 문학비평이라는 공간에서 생산된 권위 있는 담론들은 ‘문학지식’의 형태를 띠고 교육내용으로 수용되어 왔다. (이를테면 『홍길동』을 영웅의 일생 구조로 읽는 방식, 『홍부전』과 『춘향전』을 자본주의 사회의 반영으로서 읽는 것 등이 그 예이다.) 문제는 그것이 특정한 문학비평가(들)의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며, 문학비평이라는 독특한 담론의 장에서 공론화되고 다른 담론들과 대결하는 과정에 있었다는 특수성과 운동성이 탈각된 채, 특정 비평이 마치 그 작품에 대한 절대적 지식인 것처럼 다루어지는 경향에 있다. 즉 교육과정 상에서 강조되고 있는 문학현상의 역동성이나 정전의 형성 과정 같은 것이 교과서 수준에서 구체화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교사와 학생들로 하여금 이미 작품의 가치를 판단하는 가장 완벽한 관점이 이미 주어졌다고 여기게 함으로서,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해

8) 우한용, 『문학교육과 문화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석의 가능성을 제한하게 한다. 비평의 정치성과 시대성에 대한 고찰 능력이 문학교사에게 결여되어 있을 때 이러한 위험성은 증폭된다. 따라서 다양한 비평들의 해석 갈등을 검토할 때 문학교사는 자신의 독단적 해석을 교실 해석에 주입할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다.

문학교사의 메타비평 활동이 갖는 의의 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비평 속에 드러난 가치판단의 양상과 근거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비평은 작품에 대한 독자 나름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감상(鑑賞)과 구조적으로는 유사하지만, 주체의 주관성 확립 의지가 보다 분명하고, 그 주관성을 합리화시켜 소통하려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따라서 비평담론에는 의미를 타당하게 구성하고, 객관적 논리를 확보하려는 합리화 전략이 드러나게 된다. 또한 비평은 다른 비평 담론들과 서로 지지하고 간섭하고 반대하고 동의하는 역학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합리화 양상은 더 강해지게 된다. 담론의 소통과 대화가 합리성을 담보하는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반복되는 소통과 대화는 결국 참여하고 있는 이들로 하여금 합리성을 지향하도록 유도한다. 교사는 메타비평 쓰기 활동을 통해 담론들의 가치판단 양상과 근거를 살피고 이를 학생들의 문학 경험 내용 선정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메타비평 쓰기 활동은 교사로 하여금 문학교사의 비평가적 속성을 자각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문학교사는 메타비평 쓰기 활동을 통하여 문학담론의 소통 구도로부터 유리되지 않고, 현상을 파악하는 안목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⁹⁾

9) 문학텍스트조차 읽기 힘든 학습자의 수준과 교육현실에서 문학교사의 메타비평 활동이 어떤 실효성을 갖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메타비평 쓰기의 주체는 교사이며, 메타비평 쓰기를 통해 '비평 교육적 안목'을 갖추게 된 교사는 문학텍스트의 수용을 곤혹스러워 하는 학습자에게 보다 의미 있는 문학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이 글은 모든 교사가 모든 작품에 대해 메타비평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다양한 비평을 소화하고 그것을

Ⅲ. 문학교사의 메타비평 활동 내용 설계 - 김현, 백낙청, 유종호의 김승옥 비평을 예로

이 장에서는 실제 비평들을 토대로 문학교사가 수행할 수 있는 메타비평 활동의 내용을 설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층적인 해석이 축적되어 있는 김승옥 비평을 예로 삼는다. 박기범(2012)의 분석에 따르면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교과서 중 총 6종의 교과서가 김승옥의 작품을 다루고 있다.¹⁰⁾ 김승옥이 1962년 『생명연습』으로 등단하여 60년대에 주로 활동했고, 1980년 신문연재를 중단한 이후 창작 활동을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해볼 때 이러한 현상은 주목을 요한다. 길지 않은 창작기간에도 불구하고 김승옥의 소설들이 끊임없이 문학교육의 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김승옥 소설이 일정한 문학교육적 의의를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김승옥은 등단 당시부터 평단의 화려한 주목을 받았던 만큼 비교적 다양한 비평담론이 축적되어 있는데, 그 면면을 살펴보면 각 비평가들마다 상이한 입장에서 다양한 가치판단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1960년대의 대표적 비평가이자, 김승옥 소설에 대한 각각의 가치판단 양상을 잘 보여주는 백낙청, 김현, 유종호의 비평을 대상으로, 담론의 화용론적 맥락을 구성하고 문학교사의 메타비평 활동 내용 설계의 방법을 구안해 보려 한다.

교수학적 지식으로 변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본다.

10) 박기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의 현대소설 제재 분석-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37,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 p.207.

1. 비평 생산의 장(場)에 대한 소급적 재구성

메타비평 활동을 위해 가장 먼저 시도될 수 있는 것은 각 비평가가 위치해 있는 비평 수행의 장을 검토하는 일이다. 이는 하나의 담론 생성이 그것을 둘러싼 장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화용론적 전제에 기반한 것이다. 화용론에서는 언표가 아니라, 언술 행위, 다시 말해 말하는 행위 자체를 문제 삼으며, 이 행위는 그것의 화자를 반성적(재귀적)으로 지칭한다. 따라서 화용론은 대화 상황의 ‘나’와 ‘너’를 언술 행위의 필연적 관련으로 직접 등장시킨다.¹¹⁾ 여기서는 이러한 메타비평 활동의 한 예시로서 백낙청, 김현, 유종호의 비평생산 장(場)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1960년대 비평은 계간지를 중심으로 유사한 문학적 입장을 지닌 편집동인과 문학적 해석공동체가 자신들의 주장을 집대화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¹²⁾ 흔히 ‘창작과비평’과, ‘문학과 지성’과로 대표되는 문단세력이 각자의 비평적 이념을 확고히 전개해나갔고, 그 같은 문단세력을 의식하면서도 다소 거리를 두고 비평 활동을 한 이들도 있다. 문단에서는 이른바 ‘4.19 세대’의 작품들이 맹위를 떨쳤고, 문학비평 역시 그 영향권 안에 있었다.

먼저 《창작과 비평》 창간의 실제적 동력이었던 백낙청의 위치부터 살펴보자. 당시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백낙청은 1966년 《창작과 비평》 창간호에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를 게재한다. ‘새로운’이라는 제목 자체에서 이미 기존 문단세력에 대한 겨냥이 엿보이는데, 이는 《현대문학》을 위시한 보수적 문예월간지와 ‘순수문학’이라는 통념화 된 문학적 장이 지배하던 당시 상황에서 큰 충격과 반향을 불러왔다.

11) Ricoeur, P., 위의 책, p.65.

12) 권성우, 『비평의 희망』, 문학동네, 2001.

문학이 역사적 현실과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그 자신만의 영역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문학이 질적으로 우수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순수해야겠다는 말과는 매우 다르다. 후자가 이데올로기와 상관없이 통용될 수 있는 상식인데 반해 앞의 것이야말로 어떤 특정한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며 삶에 대한 특정한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¹³⁾

그는 순수문학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그 대척점에 섬으로써 비평 장에서 자신의 입지를 정향하고 있다. 문제제기와 비판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마련한 그는, 2년 후 ‘시민문학론’을 통해 그의 이념적 성격의 근저에 리얼리즘이 자리하고 있음을 더욱 뚜렷이 보여준다. 여기서 백낙청은 김승옥 문학을 ‘소시민 의식의 한계를 한계로서 제시한’ 소시민 문학으로 명명한다.

반면 김현은 서울대 불문과 출신¹⁴⁾으로 《산문시대》의 창간에서부터 《문학과 지성》의 창간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을 주도한 비평가이다. 그 역시 백낙청과 마찬가지로 전 세대 비평가들에 대한 예리한 지적을 통해 자신이 속한 4.19세대 비평가들의 가능성을 내세웠다. 그는 이어령, 유종호, 이철범 등의 전후세대 비평가들을 비판함으로써 자신을 비롯해 염무웅, 백낙청, 김치수, 김주연 등의 새로운 비평세력을 차별화했다. 김현은 전후세대가 표적이 된 <한국비평의 가능성>에서 구세대 비평에 내재된 소박한 휴머니즘과 추상성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세대가 감당해야 할 비평적 책무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창작과 비평》과는 상이한 행보를 보여주는데, 이는 김현을 위시한 《문학과 지성》 계열 비평가들이 상대적으로 미학적 자율성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창작과 비평》이 보여

13) 백낙청,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창작과 비평사, 1978, p.319.

14) 그의 비평 담론의 근본적 지식체계로서 불문학의 존재는 각별히 음미될 필요가 있다.

준 ‘사회적 현대성’과 《문학과 지성》이 보여준 ‘미학적 현대성’의 비평적 에콜(ecole) 충돌, 혹은 상징 투쟁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¹⁵⁾ 역시 서울대 불문과 출신인 작가 김승옥은 최인훈, 이청준과 함께 김현의 비평적 이념에 대해 구체성을 담보해주는 소설가로도 평가될 수 있을 정도로, 김승옥과 김현의 관계는 각별하다.

한편 유중호는 김현이나 백낙청처럼 자신의 문학적 에콜이나 잡지를 보유하지는 않았으나, 40년 동안의 비평 활동 동안 문학 언어에 대한 각별한 천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고찰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는 문학에서 언어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하며 언어에 대한 자의식이 작가의 정신을 보여준다고 파악한다.

그것은 문학자들의 비평 정신이라고 하는 문학에 대한 자의식의 구조의 심저에서 내가 저들의 언어에 대한 정치한 자의식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에 대한 자의식의 저변에서 저들의 세계관 및 문학관의 축도를 원초적인 형태로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¹⁶⁾

그는 1950년대 말부터 비평 활동을 영위하면서 1960년대 문학에 대한 독특한 탐색을 보여준다. 특히 유중호는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¹⁷⁾라는 엇갈린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런 유중호의 기념비적 평문이 다름 아닌 <감수성의 혁명 -김승옥>인데, 이 평문은 아직까지 김승옥 비평의 독보적인 절정으로 공준 받고 있다.

이상 ‘비평 생산의 장(場)’에 대한 소급적 재구성’ 활동의 한 예시로서 백

15) 임영봉, 『(상징투쟁으로서의)한국 현대문학 비평사』, 보고서, 2005.

16) 유중호, 『비순수의 선언』, 민음사, 1995, p.158

17) 한기, 「대가비평의 초상: 강단비평의 운명-유중호론」, 『합리주의의 문턱에서』, 강, 1997, p.311.

낙청, 김현, 유중호의 비평생산 장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문학교사는 김승옥의 작품을 둘러싼 비평 생산의 장(場)을 소급적으로 재구성하면서 작품에 대한 시각의 넓이와 깊이를 동시에 확보하고 해석의 평명성을 갖출 수 있다. 전술했거니와 교사는 교과서에 운문되어 실린 전문가의 해석을 수동적으로 전달하는 자가 아니며, 능동적인 메타비평가이자 문학교육자로서의 전문성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문학교사는 정전화 된 해석의 근원들을 고고학적으로 탐색하고, 기존 비평주체들의 입장이 어떤 특수한 상황 속에서 분비된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2. 문학적 가치판단의 논리화 전략 추출

메타비평 활동을 위해 다음으로 시도될 수 있는 것은 각 비평가가 활용하는 문학적 가치판단의 논리화 전략을 추출하는 작업이다. 켈러는 문학능력을 “독자로 하여금 어떠한 텍스트를 문학 작품답게 읽을 수 있게 하는 능력, 즉 내면화된 문학적 문법”으로 정의하며, 문학능력을 갖춘 해석자와 그렇지 않은 해석자를 변별하는 지점이 바로 해석 전략의 내면화 및 수행 여부라고 보았다.¹⁸⁾ 물론 켈러의 문학능력 개념은 자칫 비평가-교사-학생의 문학능력을 고정된 형태로 위계화 시킬 수 있는 맹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학교육을 설계하는 주체들이 목표하는 학습자들의 해석능력과 실제 학습자들의 해석능력 사이의 거대한 간극을 상기해볼 때, 구체적인 해석의 방법론이 학습자들에게 문학교육 내용이자 방법으로 주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학교육에서 해석의 방법론을 도출하기 위해 교사는 다양한 비평가들의 해석 전략을 살피고 그것을 교수학적으로 변환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메타비평 활동의 한 예시로서 각 비평가들의 가치판단 수행 양상을

18) Culler, J., *Structural Poetics*, Cornell Univ. Press, 1975.

파악하고 그들이 자신의 판단을 합리화해가는 전략을 살피고자 한다. 대상이 되는 텍스트는 백낙청, <시민문학론>(1969), 김현, <구원의 문학과 개인주의>(1966), 유종호 <감수성의 혁명-김승옥>(1966) 등이다.

백낙청의 <시민문학론>은 김승옥의 작품에 대한 집중적 비평이라기보다는, ‘시민문학’이라는 개념을 확립하기 위한 하나의 사례로서 김승옥의 작품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백낙청은 비평적 검토를 통해 김승옥 문학에 ‘소시민의식의 한계를 한계로서 제시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한 문학’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여기서 소시민이란 서구에서 시민사회가 일단 성립된 후에 등장하는 것이므로, 기실 한국사회에는 시민도, 소시민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소시민화 과정>은 근대적 소시민의 요소와 전근대적 요소가 뒤섞인, 우리가 넘어서야 할 어떤 것이다. 여기서 백낙청이 ‘소시민’을 극복의 대상으로서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계를 한계로서 제시하는데’에만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조건부 긍정을 내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성공한’ 이유는, 우선 화려한 감수성의 산물이라는 점, 독특하고 장난기 어린 스타일을 갖추었다는 점 때문이다. 이는 유종호의 김승옥 비평과 일정 부분 궤를 같이 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한계 안에서의 감수성이다.

여기서 백낙청은 문학적 감수성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단순한 감수성의 기록은 그것이 신선감을 주는 동안에도 부지중에 현실의 문제들을 흐려 놓기 쉽거니와’ 여기서 이미 감수성보다 현실의 뚜렷함을 강조하는 백낙청의 태도가 노출된다. 그는 김승옥의 1969년 작 『야행』에 대해 비교적 자세한 비평을 하면서 더욱 날카로운 비판의 시선을 취한다. 중산층 여인의 ‘비틀 거리는 욕구’를 소시민적 한계로서 제시하는 능력은 그것대로 인정하지만, ‘그런 흘림을 독자에게도 강요하고 있다’고 느낀다. 게다가 신비스런 사내라는, 개연성 없는 존재의 등장은 백낙청에게 ‘공허’하다. 그에게는 ‘이성의

설득력에 접하게 되는 것이 참다운 시민의식으로써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해결은 일시적 도피요, 새로운 노예화일 뿐이다. 즉 소시민의식은 미화로서는 넘어설 수 없고 오직 '우리의 헌법 전문에도 명기된 3.1 정신과 4.19 정신의 참다운 시민적 전통에 충실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

한편 김현은 개인적인 구원, 즉 자기기만으로부터의 개인적 구원이라는 테마로 김승옥 문학에 접근한다. 따라서 김승옥의 사회적 의식보다는, 개인적이고 방법론적 회의(懷疑)의 과정에 주목한다. 그래서 인물의 형상화 기법, 인물의 희극적 태도, 이미지의 제시 등이 문제되는 것이다.

“옛날에 손금이 나쁘다고 판단 받은 소년이 있었다. 그 소년은 자기의 손톱으로 손바닥에 좋은 손금을 파 가며 열심히 일했다. 드디어 그 소년은 성공해서 잘 살았다.” 조는 이런 얘기에 가장 감격하는 친구였다.

이 구절은 <霧津紀行>에서 윤 회중이 趙라는 '출세한' 친구를 설명하는 대목인데 그 의식 내부에서 조작된 진술을 통해 우리는 발자끄의 저 지루한 辭說에 접하지 않고도 단번에 趙라는 사람의 전모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파악된 인간이 얼마만큼 자기기만을 감수하고 있느냐에 대한 침통한 진술을 작가는 <霧津紀行>에서 극명히 해 보여 준다.¹⁹⁾

김현은 의식 내부에서 조작된 관념으로 개인의 성격을 뚜렷이 하는 김승옥의 기법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인물의 특성을 '태도의 희극'이라 명명한다. 이러한 태도의 희극은 자기 세계의 조건을 수락함으로써 자기 세계를 갖게 되는 이들의 것이므로, 독자들은 이러한 인물의 태도에 공감하게 된다는 것이 김현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김현은 지독히 개인적인 구원 양식을 바라고 있는 <서울 1964년 겨울> 속 安의 태도에 깊은 공감을 나타낸다.

19) 김현, 「구원의 문학과 개인주의」, 『현대문학』, 1966.3, p.242.

매우 순간적이고 저돌적이기는 하지만, 그의 그 깊은 페시미스트적인 음성 속에는 나를 간절히 올려 주는 ‘내면의 空洞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이 있다… 인간이란 무엇일까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의 방법론적인 회의가 무엇을 낳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침착하게 기다리지만 하자.²⁰⁾

이는 김현이 安의 태도에서 프랑스 초현실주의와의 친연성을 읽어내고, 거기서 구원을 찾는 태도에 동조하기 때문이다. 개인적 해결이라고 한계 짓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해결의 원인과 공감적 호소력에 주목하는 양상이 김현의 비평에서 두드러지며, 백낙청과의 차이점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유종호는 1966년 ‘감수성의 혁명’이라는 비평문을 통해 김승옥의 작품 『무진기행』을 평한다. 특히 그는 작가의 언어적 재능에 주목한다.

평범한 일상의 저변에서 경이를 조성하면서 환상과 현실을 희한하게 조화시키는 허구조성 능력, 기지가 변뜩이는 분석력, 만화경같이 다채로운 의식의 요술도 결국은 그의 참신한 언어재능에 의존하고 있으며 새로운 감수성이란 요컨대 이 언어재능이 성취한 혁신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²¹⁾

즉 유종호가 말하는 ‘감수성의 혁명’이란 곧 ‘언어적 감수성의 혁명’과 동의어이다. 미완성처럼 보이는 삽화적 구성에도 불구하고 무진의 안개에 대한 첫 묘사부터 이미 독자는 낯선 세계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만다’. 김현 역시 동일하게 지적했던 趙의 성격조형능력, 묘사의 회화적 선명성 등을 초점화하며 자신의 판단을 논리화해 나간다. 이처럼 유종호는 김승옥의 모국어 구사능력에 감탄하는데, 이는 유종호라는 비평가가 모국어의 구사를 시종 강조해왔다는 점과 맞물린다. 다시 말하면, 유종호의 비평적 이념이 김승옥이란 작가를 통해 구체적 사례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20) 김현, 위의 글, p.258.

21) 유종호, 『비순수의 선언』, 민음사, 1995.

앞의 구절을 작품현장에서 떼어놓고 본다 하더라도 비근한 우리의 일상적인 말이 이렇듯 단단한 밀도를 얻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황홀케 한다. 작가의 비력을 모국어로 돌리는 일의 허망함을 다시는 허용하지 않을 본때 있는 위엄의 사례다.

이렇듯 일상 언어와 그 ‘밀도’가 다른 문학 언어의 마력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신비평의 영향마저 느낄 수 있다. 서문에서도 밝혔듯²²⁾ 유종호는 시종 찬양의 비평자세를 취하지만, 그러면서도 작가에게 객관성 지향을 당부한다.

이것은 한 작가에게 자기의 자질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서 무사한 객관성을 공언할 수 없지만 자기의 주관성을 승인하고 자각함으로써 보다 높은 단계의 객관성을 지향할 수 있다… 우리가 위와 같은 말을 첨가하는 것은 한 뛰어난 재능에 인색한 단서를 붙이지는 응졸한 심산에서가 아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의 권리처럼 요구하게 되는 신뢰와 기대에 찬 호응의 요망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백낙청의 비평에서처럼 ‘소시민 의식’ 같은 부정적 개념화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애정을 띤 당부와, 비평의 중용적 태도에 가깝다는 점이 유종호 비평의 특성이다. 김승옥에 대한 이러한 애정의 시선은 1990년대에 이루어진 김승옥 비평에서도 수정되지 않는다.

1960년대라는 가버린 연대에 대하여 김승옥만큼 깊이 참여하고 재현한 예는 별로 없을 것이다. 김승옥의 등장 이후 섬세함과 투박함의 기준은 그 눈금이 한결 세밀해졌다. 이 눈금의 세분화 추세가 결국은 발전이요, 성장인 것이다.²³⁾

22) 유종호, 위의 책, p.10. “그동안 많이 휘갈겨왔던 작품평류는 일부러 넣지 않았다. 시, 소설 한 편씩을 넣었을 뿐이다. 앞으로 그 따위는 쓰고 싶지 않다. 실은 찬송의 비평이 쓰고 싶은 것이다.”

이상 ‘문학적 가치판단의 논리화 전략 추출’ 활동의 한 예시로서 백낙청, 김현, 유종호의 해석 전략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검토 결과 각 비평가는 각기 보유하고 있는 해석의 관습과 전략을 매개로 삼아 비평이라는 실제적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가의 해석 전략은 해석의 타당성을 구성하는 지식과 전략적 사고력, 소통 방식 등을 예시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해석의 전범(典範)은 아니지만 하나의 교육적 비계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문학교사는 이러한 비평가들의 해석 전략을 도출하여 이후 학습자들의 해석 텍스트 쓰기 방법론으로 변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여홍상은 ‘문학적 언어능력’을 문학 언어를 자기 자신의 “내적으로 설득력 있는 언어”로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문학적 언어능력이라 규정한 바 있다.²⁴⁾ 따라서 전문가들의 비평 텍스트가 한 편의 문학작품을 어떻게 제각기 “내적으로 설득력 있는 자신만의 언어”로 재창조해내는지 그 전략을 도출하는 활동이 교사의 메타비평 활동 내용으로 제안될 수 있다고 본다.

3. 비평 수행 주체의 문학관에 대한 시차적(示差的) 검토

이 절에서는 문학교사의 메타비평 활동을 위해 시도될 수 있는 활동으로 비평 수행 주체의 문학관에 대한 시차적 검토를 제안하고자 한다. 한 작품에 대한 비평가들의 가치평가는 그들 각각이 ‘문학이란 무엇인가’이라는 질문에 대해 갖고 있는 답을 반영한다. 즉 비평가들이 어떤 작품을 진정한 문학, 좋은 문학으로 보느냐가 실제 작품에 대한 가치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문학교사는 이러한 비평 수행 주체의 문학관을 상호텍스트적으로 검토하면

23) 유종호, 『문학의 즐거움』, 민음사, 1995, p.174.

24) 여홍상, 『영문학 교육의 정체성과 문학적 언어능력-비판적·창조적 사고를 위하여』, 『영어영문학』45-1, 한국영어영문학회, 1999.

서 개인 혹은 공동체가 상정하는 문학의 개념과 가치가 어떻게 문학적 가치 판단으로 이어지는지 탐구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작업은 한 개인으로서 문학교사가 갖고 있던 문학관의 편협성을 경감시키고, 학습자들에게 문학이라는 개념이 갖는 광대한 힘과 의미역을 교육하도록 도울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메타비평 활동의 한 예시로서 백낙청, 김현, 유종호의 비평 텍스트에서 전제된 그들의 문학관을 시차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백낙청은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에서 문인과 지식인에게 부여된 역사적 사명을 자부함으로써 그의 비평이 문학의 사회성 구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 관한 한, 민중의 저항을 가로막고 근대화를 위한 가장 보편적인 이상을 제시하며 또 실천하는 역사의 주동적 역할을 작가와 지식인이 맡아야 한다는 데에 딱 말이 있기 어렵다”²⁵⁾

작가와 지식인, 즉 창작인과 비평인은 한국이라는 특수한 사회역사적 공간에서 계몽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백낙청의 계몽적 이상은 리얼리즘이라는 문학적 기획에 의하여 모습을 드러낸다. 무엇보다 여기서 백낙청이 보여주고 있는 문제의식의 선명함과 그 새로움이란 무엇보다 그가 문학 자체의 이데올로기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의 이월가치(移越價値)를 동시에 수긍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백낙청의 사유를 이진 순수-참여문학 논쟁에서 보다 심화된 것이라 볼 수 있는 까닭이다.

문학의 이월가치(移越價値)를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예술 활동의 자율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새로이 하게 된다. 물론 역사적 사회적 관심과 제약으로부터 면제되는 자율성이란 있을 수 없다. 가장 순수한 기법상의 문제, 예컨대 시에

25) 백낙청,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 『창작과 비평』 창간호, 1996.

쓰이는 리듬의 변화나 소설서술의 시제(時制)조차도 그 역사적 상황과 작가의 현실감각에 뿌리를 둔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자신의 생활과 남의 영향을 구분하는 것부터가 무의미하며, 이러한 창작과정에서 각기 다른 시대나 사회로부터 이월된 문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갖가지 다른 영향과 자극 가운데서 자기 나름의 스타일을 창조해내는 작가가 값있는 작품을 쓰게 마련이다.²⁶⁾

즉 작가를 사르트르적 의미에서 지식인과 동질의 존재로 규정하면서, 자신의 시대와 역사에 대한 작가의 책무를 강조하는 한편 나름의 스타일을 갖추어야 하는 예술활동의 자율성 역시 강조하는 문학관을 보인다.

한편 김현의 문학관은 그의 평단 데뷔작 <나르시스 시론>(1962)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앞서 살폈듯 불문학은 그의 비평 전반의 흐름을 규정하는 지식체계이다. ‘시와 악의 문제’라는 부제를 단 이 글에서 역시 발레리, 사르트르, 바타이유 같은 프랑스 지식인으로서의 경사가 드러난다. 이 글에서는 시 즉 미(美)가 진, 선 과 일치할 수 있었던 전근대가 지나고, 근대에 이르러 아름다움과 선함이 서로 일치할 수 없게 되었다는 논리를 나르시스 신화에 기대 펼치고 있다. 문학이란 아름다움과 선함, 상상적 세계와 현실적 세계의 구멍-그것이 곧 악이다-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불행한 존재의 숙명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간극을 매개하는 것은 ‘언어’라고 파악한다. 이 같은 김현의 문학관이 설득력을 갖고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데는 김승옥이라는 작가의 존재가 있었다. 김승옥의 소설들이 보여주는 윤리의 마비와 미학적 감수성, 초현실주의적 태도는 김현의 비평적 이념이 가장 성공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대상이었던 것이다.

유중호는 백낙청이나 김현에 비해 빠른 50년대부터 비평 활동을 수행해 왔고, 여타 전후세대 비평가들과 마찬가지로 신비평의 영향 아래 출발했다. 따라서 그의 문학관은 문학 언어에 대한 감수성으로 포착될 수 있다. 그는

26) 백낙청, 위의 책, p.11.

자신의 등단작 <불모의 도식>²⁷⁾에서 문학을 ‘언어의 마술’로 정의한다. 즉 그에게 문학 언어에 대한 미시적 탐구는 그의 문학비평 방법론 그 자체였다. 앞서 살폈듯 무진기행에 대한 비평문에서 그가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은 모국어의 화려한 구사력이었다. 그가 높이 평가하는 시인이 정지용이라는 점도 이러한 그의 태도를 뒷받침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신비평의 한계 아래 머물러 있지는 않았다. ‘산문정신’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이해는 이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그에 의하면 산문정신의 핵심은 ‘전면적 진실의 추구’에 놓여 있으며 ‘인간현실의 전면적 관찰과 이에 따른 인생에 대한 통찰’²⁸⁾을 주성분으로 한 것이다.

하멜과 스미스(1998)는 학습자들의 비평 능력을 향상시키는 지난한 작업에 있어, 교사들의 좌절을 극복시켜줄 모델이 없음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교사 개인의 해석이나 특정 비평가의 해석이 아닌, 여러 비평가들의 해석 전략을 문학교실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⁹⁾ 이렇게 함으로써 교사는 특정한 문학관이나 특정한 해석을 지지하는 편향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교실에서 문학적 권위를 재분배할 수 있다. 즉 교사는 다양한 문학관과 다양한 해석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들을 검토하는 메타비평가의 입장에 섬으로써, 수동적 전달자나 지배적 해석자로서가 아니라 교실 공동체의 한 일원이자 학습자들의 비평 능력을 향상시키는 지지자, 조정자, 매개자로 기능할 수 있다.

27) 유중호, 『불모의 도식-1957년의 시』(《문학예술》, 1957.7), 『비순수의 선언』, 민음사, 1995, p.307.

28) 유중호, 『산문정신고』, 『현대문학』, 1958, p.174.

29) Hamel, F. L., Smith, M. W., YOU CAN'T PLAY IF YOU DON'T KNOW THE RULES: INTERPRETIVE CONVENTIONS AND THE TEACHING OF LITERATURE TO STUDENTS IN LOWER TRACK CLASSES, Reading & Writing Quarterly, 14-4, 1998, p.355.

IV. 결론

이 글은 문학교실에서 문학교사가 메타비평가로서의 속성을 지닌다는 전제에 기반하여, 문학교사가 수행할 수 있는 메타비평적 활동을 제안하였다. 교육과정이 목표하는 수준 높은 문학능력, ‘해석의 정전화’에 도달해버린 문학 비평의 권위, 학습자들의 문학능력 제고라는 실제적 과제의 삼중고(三重苦) 속에서 문학교사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만한 특별한 모델이나 활동을 제안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문학교사가 자신의 교수학적 지식을 신장시키는 한편 학습자들의 문학능력 성장을 위한 비계를 도출할 수 있는 활동으로 메타비평이 제안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교사의 메타비평 활동 설계의 원리와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김승옥의 소설에 대한 전문비평가들의 비평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교사의 메타비평 활동 내용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하였는데, 비평 생산의 장(場)에 대한 소급적 재구성, 판단의 논리화 전략 추출, 비평 수행 주체의 문학관에 대한 시차적(示差的) 검토 등이 그것이다.

비평을 문학교육의 국면에서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는 충분히 축적되어 왔으며, 이 글 역시 그러한 연구 성과에 기대고 있다. 그러나 비평이 직접적인 학습 자료로 주어졌을 때 학습자가 겪게 되는 어려움, 전문비평과 학습자의 해석 활동이 갖는 목표상의 차이, 문학교사가 갖추어야 할 비평적 역량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충분히 탐구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비평이 갖는 문학교육적 의의를 생산적으로 활용하되, 그것을 지금껏 논의되지 않았던 문학교사의 메타비평가적 속성과 결부시켜 구체적인 활동의 예시를 보인 것이 이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이상의 검토는 김승옥의 소설에 대한 일부 평문에 대해서 주로 이루어졌고, 학습자 변인이나 교재 변인 등에 대한 실제적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변인과 맥락을 고려하면서 전문비평가와 학습자의 문학능력 사이를 가장 생산적인 방식으로 교류시키는 문학교사의 활동을 구조화하고 이를 실제 현장에 투입하여 그 교육적 의의를 검증하는 작업을 후속 연구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김 현, 「구원의 문학과 개인주의」, 『현대문학』, 1966년 3월호.
백낙청, 「민족문학론」,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창작과 비평, 1969년 여름호.
유종호, 「김수성의 혁명」(1966), 『유종호 전집 1-비순수의 선언』, 민음사, 1995.

2. 논문 및 단행본

- 권성우, 『비평의 희망』, 문학동네, 2001.
김우중, 「비평의 원칙 문제」, 『현대문학』45, 1958.9, p.77.
김윤식, 『韓國文學史論考』, 법문사, 1973.
박기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의 현대소설 제재 분석-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37,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 p.207.
여홍상, 「영문학 교육의 정체성과 문학적 언어능력-비판적·창조적 사고를 위하여」,
『영어영문학』45-1, 한국영어영문학회, 1999.
우한용, 『문학교육과 문화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_____, 「문학교육의 평가-메타비평의 글쓰기 평가를 중심으로-」, 『국어교육』100, 한
국어교육학회, 1999, p.539.
이동연, 「메타비평의 정치적 재구성」, 『문예미학』6, 문예미학회, 1999, p.423.
임영봉, 『(상징투쟁으로서의)한국현대문학비평사』, 보고서, 2005.
한 기, 「대가비평의 초상: 강단비평의 운명-유종호론」, 『합리주의의 문턱에서』, 강,
1997, p.311.
Culler, J., Structural Poetics, Cornell Univ. Press, 1975.
Eisener, W. E., The educational imagination: On the design and evaluation of school
programs(Third edition), Macmillan College Publishing Company, 1994.
Hamel, F. L., Smith, M. W., YOU CAN'T PLAY IF YOU DON'T KNOW THE
RULES: INTERPRETIVE CONVENTIONS AND THE TEACHING OF
LITERATURE TO STUDENTS IN LOWER TRACK CLASSES, Reading
& Writing Quarterly, 14-4, 1998, p.355.
Hernadi, P., What is criticism?, Indiana University Press, 1981(최상규 옮김, 『비평
이란 무엇인가』, 예림기획, 1988).

Ricoeur, P., *Soi-même comme un autre*, Paris : Seuil, 1990(김응권 옮김, 『타자로서의 자기 자신』, 동문선, 2006, p.65).

Abstract

A study on the educational possibility of meta-criticism

Woo, Shin-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literature-teacher's meta-criticism activity and to elucidate its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Until a recent date, many scholars emphasize critical activity of students in the literature-classroom. But there's no models or methods to develop a student's competence of literary criticism.

I suggest that teachers are meta-critic in literary classroom because they have to engage communication of criticism and they have to transform criticism for their students. So they should use educational meaning of professional literary criticism productively for didactical transposition.

In order to take concrete shape, the paper examine works of literary criticism form the 1960s, specially focusing on criticism about Kim Seung-Ok's fiction. Based on this theoretical survey, the present study design the activity of meta-criticism for teacher in literary classroom. This activity is make up three steps: 1) retroactively reconstitution of critic's discursive fields and contexts 2) extraction of reasoning strategies using in value-judgment 3) examination of difference in critic's viewpoint about 'literature'.

This study is meaningful because it develop teacher's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PCK) and provide a scaffolding for student's competence to interpret and criticize literature.

Key Word : meta-criticism, activity of meta-criticism, literature teacher,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literary competency

우신영

소속 : 명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주소 : (151-742) 서울시 관악구 대학동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9동 206호

전화번호 : 010-7207-4928

전자우편 : fox11@snu.ac.kr

이 논문은 2014년 2월 28일 투고되어
2014년 3월 2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4월 8일 게재 확정됨.